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모와 부애착의 조절효과

김시형 이동훈[†] 최준섭 이도영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와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모애착과 부애착의 조절효과를 각각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5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Ping의 2단계 방법을 적용하여 모애착과 부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학교적응과 관련한 하위 요인으로는 학교흥미, 학업성취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적응은 모애착, 부애착과 정적인 상관관계, 우울, 불안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모애착은 모두 유사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부애착의 경우에는 학교적응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유사조절 효과를, 학교적응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는 순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조절효과의 양상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모애착과 부애착은 모두 긍정적인 효과의 크기를 상승시키는 형태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애착과 부애착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Ping의 2단계 방법을 적용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모애착, 부애착의 조절효과를 각각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우울, 불안, 학교적응, 모애착, 부애착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 dhlawrence05@gmail.com

급격한 신체 및 심리적 변화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강하게 경험한다(최인숙, 2012). 실제 2016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검사인원 중 남학생의 20.9%, 여학생의 30.5%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우울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울과 불안이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들(김수연, 2016; 박영신, 김의철, 2003; 주석진, 2011)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 불안 등의 정신병리 요인의 점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한 양미진, 이은경, 이휘우(2006)의 연구결과 및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드러내었음을 밝힌 선행연구(김정민, 유안진, 2005)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기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우울과 불안은 더욱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울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슬픈 감정, 무기력, 절망감 등을 의미하며(고수현, 강석기, 2014),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주요 정신 질환 중 하나이다(Hankin, 2006). 우울은 유전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모두의 복합 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이상준, 안수영, 2011), 인생 전반에 걸친 우울은 종종 청소년기에 시작된다는 사실이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다원적인 질병으로서, 개인의 정서, 사고, 자기 감각, 행동, 대인관계, 신체적 기능, 생물학적 과정, 작업 생산성, 전

반적인 삶의 만족 등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우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인 불안은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염려 및 걱정으로 인해 생기는 반응으로 정의된다(신민진, 하은혜, 2010). 불안은 자기를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초를 두고 환경이나 개인 스스로에게 있어서 위협이라고 인식되는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적 상태이며, 지속적인 변동 속에서의 일시적인 상태로, 긴장과 우려가 의식적으로 인식되는 불쾌한 상황과 자율 신경 체계 활동의 증가로 특징지어진다(Cruz, Duarte, Nelas, Antunes, & Almeida, 2014). 우울이나 불안은 일상생활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우울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들에는 처진 기분 혹은 흥미나 쾌락의 상실 등이 있으며 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에는 빠른 호흡, 빠른 심장박동 또는 식은땀 등의 매우 빠르고 극적인 신체적 변화가 포함된다(Hughes, Herron, & Younge, 2014).

청소년기에 겪는 우울과 불안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고등학생들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의 경우, 정서적 측면에서 장진이, 광노은, 이지연(2016)은 남녀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거부민감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정서조절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고 더욱이 우울은 남녀고등학생이 포함된 김소린, 이은정, 조수현, 이성찬, 이상민(2014)의 연구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원경(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여부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측면에서도 한지영, 김정민(2016)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섭식장애까지 겪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불안의 경우 역시, 정서적 측면에서 문승태, 김희수(2009)는 고등학생의 불안감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짐을 보고하였고, 조민자(2013) 역시 중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신체적 측면에서도 김산, 하은혜(2011)는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이 신체화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김윤희, 허영란(2000)은 중고등학생을 통해 불안정향이 높을수록 흡연, 음주 기타 약물남용 경험이 많아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사라형선(201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및 자기수용과 부적 상관임을 밝혔다. 이를 종합해볼 때, 청소년기의 우울과 불안은 정서적, 교육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며, 일시적이기보다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의 문제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의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정서와 태도, 학교 환경에의 몰입과 관여의 관점에서도 정의되는 학교적응(Birch & Ladd, 1997)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평가위주의 교육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 및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험불안이 우울증 및 기타 불안(상태불안 및 특성불안)과 정적 상관임을 밝힌 조수철, 정영, 홍강의, 신민섭, 성영

훈(2001)의 연구, 대학입시로 인해 고등학생들이 우울과 불안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한 유정, 김봄메, 신형섭, 정주영, 최남희(2010)의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 학업성취와 학교흥미의 측면과 관련지어 학교적응의 문제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우울은 부적상관, 즉 학교적응을 잘하는 경우일수록 우울수준이 낮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울수준이 더 높았음을 보고(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송아랑, 신호정, 2015)하였고,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2014)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은 우울에 대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지민(2007)은 대부분의 청소년 집단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정화, 조춘범(2017) 역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찬가지로 Crystal, Chen, Fuligni, Stevenson, Hsu, Ko, & Kimura(1994)은 일본, 중국, 미국 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와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높은 상관관계를 발견하였으며, Sideridis (2005) 역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업 수행회피와 불안, 우울의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문주, 이혜성(1991)은 학업성적이거나 평가결과를 중요시하는 환경적 분위기가 시험불안의 직접적 원인임을 보고하였으며,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힌 하민정(2015)의 연구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학교적응은 선행 연구들에서 우울과 불안에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학교생활적응을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학교부적응,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성적까지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보고 있음(Woolley, & Grogan-Kaylor, 2006)을 고려하면, 학교부적응 역시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조운숙, 이경남, 2010; 이경은, 1998).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해, 예방, 치료, 교육적 개입을 위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더욱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이 모두 심각한 우울,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지각된 학업 수행과 불안, 우울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디스트레스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Verner-Filion & Vallerand, 2016), 학업성취와 우울증상 및 우울의 수준 간에 상관이 없었음을 나타낸 연구결과(Hamdan-Mansour, Hamaideh, Azzeghaiby, Hanounch, & Aboshaiqah, 2015; Prakash & Coplan, 2007)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학교적응수준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미비하거나 문제수준이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 사이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키는 조절요인의 존재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적응과 우울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로 송아량, 신호정(2015)이 학교적응과 우울의 관계에서 또래갈등해결전략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적응과 우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우울간의 상관관계만을 밝히거나 청소년 개인의 우울이 학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소선숙 등, 2010)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대상 불안에 대한 연구들 역시 매개와 조절, 요인연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불안에 미치는 연구가 많지 않음(유현애, 홍혜영, 2013)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절요인의 탐색과 확인은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의 예방과 개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간의 관계 사이에서 조절효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로는 청소년의 대처전략에 따라서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Herres, 2015),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과 자기통제력 수준이 우울과 불안수준을 낮춤(배미예, 이은희, 2009)과 같이 개인적 측면의 변인을 살펴본 선행연구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다수의 양육 전략을 제시한 연구(Yap, Pilkington, Ryan, Kelly, & Jorm, 2014) 등 환경적 측면의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처럼 앞서 언급한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에 대한 상반된 선행연구 결과의 존재뿐만 아니라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 사이에 이미 확인된 조절변인의 존재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다른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모두 종합해 볼 때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한 청소년들일지라도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간의 조절변인으로 부모애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애착이란, 부모와의 정서적인 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Bowlby

(1969)에 따르면 어린 아이가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며, 형성 이후에는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이후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insworth(1989) 역시 애착관계의 중요성이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청년기 이후에도 지속됨을 보고하였고, 불안정한 애착의 형성 및 이로 유발되는 문제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되어 국내에는 대상관계이론의 상담적 접근(김진숙, 2001) 및 교정적 정서 경험(이순태, 김명식, 2017)에 관한 연구들도 알려져 있다.

흔히 청소년기에는 가족을 넘어 또래라는 새로운 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전 아동기에 비해 또래와의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유선, 2013; 김정민, 유안진, 2005). 실제 연구에서도 또래애착이 높은 수준의 청소년들은 낮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보고(Papini & Roggman, 1992; Wilkinson, 2004)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있어 부모애착이 또래 애착보다 강력한 요인으로 검증된 선행연구(Armsden, McCauley, Greenberg, Burke, & Mitchell, 1990; 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또래애착이나 학교소속감보다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수행 문제와 정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특히 더 영향력이 있다는 선행연구(Oldfield, Humphrey, & Hebron, 2016), 부모애착은 또래애착과 함께 청소년의 심리 건강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Armsden, & Greenberg, 1987)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모두 고려하면, 청소년들에게 있어 근본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김정민, 유안진, 2005)고 볼 수 있다.

부모애착과 우울, 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우울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 우울의 중요한 보호요인(Raja, McGee & Stanton, 1992)으로, 청소년기 초기의 애착이 적게 형성될수록, 청소년기 후기에 우울과 행동장애 증상을 더 많이 보임을 밝힌 연구(Scott et al. 2013)가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서양에 관계없이 부모와의 애착이 우울증상과 부적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Li, Delvecchio, Lis, Nie, & Di, 2015), 이외에도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일 때 청소년들은 우울 증상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Constantine 2006; Harold, Shelton, Goeke Morey, & Cummings, 2004; Laible, Carlo, & Raffaelli, 2000; Wilkinson 2004), 부애착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모애착의 경우 청소년의 우울한 증상과 부정적으로 유의함을 밝힌 연구들(DiFilippo, & Overholser 2000; Liu 2008; Margolese, Markiewicz, & Doyle, 2005)이 있다.

부모애착과 불안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냈으며(Armsden & Greenberg, 1987; Kenny & Donaldson, 1991),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에게서 불안이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한 연구(Bosquet, & Egeland, 2006; Warren, Huston, Egeland, & Sroufe, 1997)들이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고등학생의 부애착과 모애착이 대인불안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한승희, 김은하, 2015), 중고등학생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애착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김소연, 이영식, 한덕현, 남규탁, 고복자, 2006)들도 있다. 반면, 모애착만이 청소년의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보고한 연구(Liu, 2008; Viana, & Rabian, 2008)와 반대로 청소년의 불안증상에 모애착

은 유의하지 않지만, 부애착의 경우 불안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함으로써 청소년의 발달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힌 연구(Van Eijck, Branje, Hale, & Meeus, 2012)도 있다.

이외에도 부모애착과 우울, 불안 모두와의 관련을 살펴본 연구들로, 30년에 걸쳐 이루어진 미네소타 종단연구는 영유아기의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정서건강 등의 특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Irons와 Gilbert(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갖는 안정애착이 낮은 우울과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청년기에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크고(Kenny, & Donaldson, 1991), 애착불안, 애착회피 등 불안정하게 형성된 애착이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밝힌 연구(신문혜, 이지연, 2015) 등 부모애착과 청소년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모두 종합해보면,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우울, 불안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동시에 우울 및 불안과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애착이 비교적 잘 형성된 청소년들에게는 낮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모애착과 같이 한 쪽 성별에 치우쳐 학교, 사회, 일상생활의 적응문제에 애착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확인하거나(강유임, 김병석, 2013; 이지연, 백정빈, 2009) 주로 부모애착을 구분 없이 다뤄왔으며(김정민, 유안진, 2005; 윤명숙, 이재경, 2010; 이미현, 2014; 조수민, 김정화, 노충래, 2015)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와의 관계만을 단지 검증했을 뿐이다(남윤주, 이숙, 2009; 민하영, 2012; 장애경, 이지연, 2010). 더욱이, 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 거절과 과보호가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 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준 반면 부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는 불안 증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Breinholst, Esbjørn, & Reinholdt-Dunne, 2015), 부애착과 모애착이 남녀 고등학생의 내재화 문제 행동과 외현화 문제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조미정, 김민주, 2014),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부애착과 모애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힌 연구(김누리, 신나나, 2017), 고등학생의 대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부애착과 모애착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한승희, 김은하, 2015)처럼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애착과 모애착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애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의 변인으로 살펴보는 방식은 특정 변인에 대한 모애착과 부애착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도 제공해주지 못함을 강조하며 부모애착과 여타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상호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애착과 부애착의 구분을 고려해야 함(선영운, 2016; Bridges, Connell, & Belsky, 1988; Grossmann, Grossmann, Fremmer-Bombik, Kindler, & Scheuerer Englisch, 2002)을 실제 연구에 적용해 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즉, 자녀의 교육과 돌봄에 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아버지가 증가하고 있다(권애리, 2017; 이지은, 2017; 최준섭, 이동훈, 2017). 따

라서 사회적 요구와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에 치우쳐 있는 육아와 자녀 양육 현실에서 아버지의 육아 및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정책 수립과 보완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더욱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사회적, 시대적으로도 더욱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문제에서 청소년에게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애착과 모애착을 서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애착의 선행연구들이 우울, 불안과의 관계검증차원에 머물렀던 것을 넘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부애착과 모애착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학교 적응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요인으로서 환경적 측면의 부애착, 모애착에 주목하여 이들의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학교적응을 독립변인으로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물론 본 연구의 모형과 같이 조절변인으로서의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학교적응과 우울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소선숙 등, 2010),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학교적응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을 모두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와 불균형을 경험하며(박정녀, 최해림, 2005, 한창환,

2001) 다양한 적응문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권오숙, 문성호, 2007,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그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대학진학을 위한 평가 및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 환경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와 학교흥미에 관련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유정 등, 2010; Sideridis, 2005; Thompson, 1987). 애착의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전 생애적으로 지속되는 부모애착(김미정, 강인철, 2008)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는 선행연구가 지속되고 있다(안혜원, 이재연, 2009). 이와 관련, 고등학생의 우울에 어머니의 애착이 또래에 대한 애착의 영향보다 크며(이경남, 2003), 부모애착이 고등학생의 우울/불안을 포함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역할을 하고(안혜원, 이재연, 2009), 부모애착만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으로 기여함(Raja et al, 1992) 등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청소년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박정녀, 최해림, 2005; 이경남,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부애착과 모애착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부애착, 모애착, 우울, 불안을 확인하고 학교적응과 부애착, 모애착, 우울, 불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애착과 모애착이 학교적응과 우울, 학교적응과 불안의 관계에서 각각 조절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 사이에 부애착, 모애착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임상차원에서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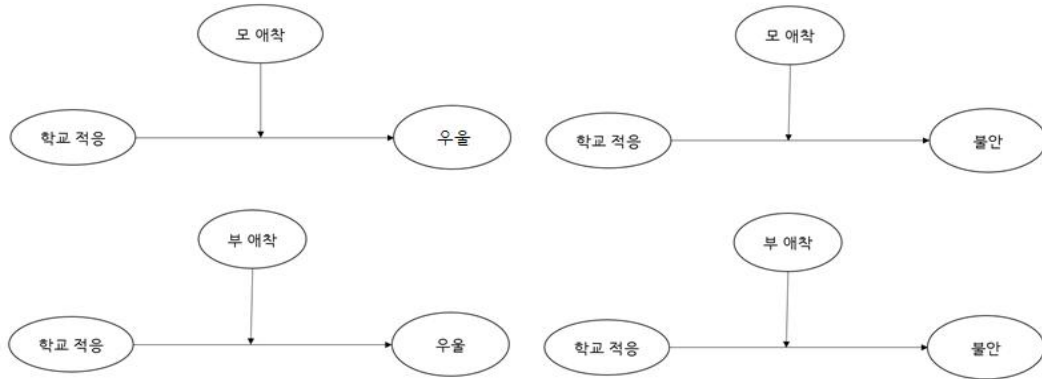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개념적 모형)

소년의 우울, 불안의 부정적 정서 치료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애착, 모애착을 고려한 상담적 접근과 프로그램의 계획수립을 통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나타내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상담과 치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적응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모애착, 부애착이 조절하는가를 검증하는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교적응 및 모애착, 부애착, 우울, 불안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서 모애착은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애착은 조절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

구윤리심의위원회(IEB)의 승인을 받아, 연구에 참여할 학교를 접촉하여 최종적으로 수도권 지역 5개 학교(서울 4, 경기도 1)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과 설문지에 작성하고 이를 선생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명을 한 이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가 포함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후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설문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걸렸으며, 설문지당 작성시간은 평균 20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450부를 배포하였으며, 420부(93.33%)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6부와 연구 변인들에서 표준편차 3을 벗어나는 이상치를 가진 30부를 제외한 334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 대상자는 각각 2·3학년으로 진급을 앞두고 있는 1학년 186명(57.6%), 2학년 142명(42.5%)으로 남학생 170명(51.3%), 여학생 161명(48.7%) 이었다.

측정도구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학교에서 흥미와 성취에 대한 학교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Hernandez(1993)가 개발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School Interests Questionnaire)척도를 박현선(1999)이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번안하여 구성한 학교적응 유연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학교에 대한 흥미(8문항)와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8문항)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적응은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나에게 있어 학교 성적은 참으로 중요하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0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3점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현선(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였다.

부모애착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와 Greenberg(1987)의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Raja 등(1992)이 개정한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를 김수희(2009)가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PPA-R 척도는 청소년 보고용으로, 부모와 각 12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애착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수희(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부애착이 .84, 모애착이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부애착의 Cronbach's α 는 .89 모애착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우울, 불안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우울, 불안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1993)가 개발한 BSI를 Derogatis(2001)가 직접 축약한 BSI-18(Brief symptoms Inventory-18)를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2012)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6문항), 불안(6문항), 신체화(6문항)의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만을 사용하였다. 우울은 '기분이 울적하다.', 불안은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과 관련된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기쁨 등(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우울이 .89, 불안이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우울의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불안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1.0을 통해 단순 빈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하위변인이나 문항

꾸러미를 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으로 생기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해석상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균중심화 하였다. 평균중심화 이후, AMOS 21.0을 사용하여 Ping(1996)의 2단계 접근법 중 1단계인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Ping의 2단계 접근법 중 2단계는 1단계를 통해 산출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분산과 측정오차 분산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의 분산과 상호작용항의 요인적재량 및 오차분산을 계산하여 직접 입력하여 분석을 실시한 뒤 적합지수를 확인하고 모형을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학교 적응, 부애착, 모애착, 우울, 불안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고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 모형 판별과 추정치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문항꾸러미(item-parcel)를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김수영, 2016). 문항꾸러미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 (1998)의 제안에 따라 개수는 3개, 합치는 문항의 선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균등한 요인부하량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Kline(2005)이 제시한 3과 10을 넘지 않아 SEM분석을 진행하는데 정규성과 경향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Ping의 1단계 검증(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애착과 모애착을 각각 조절변인으로 분석하기에 두 개의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사용된 연구 변인들의 측정모형을 Hu와 Bentler(1999)가 적합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한 CFI, RMSEA, SRMR을 확인하였다. 두 측정모형 모두 CFI가 .90이상이고 RMSEA가 .1이하 SRMR이 .08이하로 확인되어 수용가능한 적합도로 확인되었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또한,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이 .51~.95의 범위를 가져 최소 .40은 넘어야 한다는 이순목(2000)의 제안에 따라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2, 그림 2, 3과 같다.

Ping의 2단계 검증(구조모형 검증)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Ping(1996)의 2단계 접근방식에서 2단계는 1단계에서 산출한 예측변인인 학교적응과 조절변인인 부애착과 모애착의 분산과 측정오차 분산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의 분산과 상호작용항 지표 변인의 요인계수 및 오차분산을 계산하여 고정하고 모형을 검증하고 적합지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계산으로 얻은 모애착과 학교적응에 대한 상호작용항의 오차분산은 533.60, 잠재변인의 요인적재량은 9.15 잠재변인의 분산은 12.80이었고, 부애착과 학교적응에 대한 상호작용항의 오차분산은 701.243, 잠재변인의 요인적재량은 9.10, 잠재변인의 분산은 19.28이었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하기 전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결과, Hu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학교적응1	-														
학교적응2	.646**	-													
학교적응3	.295**	.458**	-												
부애착 1	.186**	.189**	.306**	-											
부애착 2	.240**	.213**	.327**	.792**	-										
부애착 3	.215**	.299**	.371**	.666**	.777**	-									
모애착 1	.176**	.159**	.264**	.662**	.702**	.658**	-								
모애착 2	.255**	.208**	.228**	.532**	.551**	.553**	.656**	-							
모애착 3	.251**	.235**	.303**	.536**	.543**	.645**	.599**	.820**	-						
우울 1	-.369**	-.312**	-.296**	-.302**	-.294**	-.359**	-.259**	-.335**	-.379**	-					
우울 2	-.412**	-.302**	-.204**	-.192**	-.202**	-.268**	-.195**	-.239**	-.311**	.681**	-				
우울 3	-.377**	-.251**	-.310**	-.269**	-.313**	-.347**	-.286**	-.308**	-.376**	.624**	.706**	-			
불안 1	-.256**	-.158**	-.160**	-.093	-.140**	-.148**	-.119*	-.140**	-.183**	.607**	.670**	.557**	-		
불안 2	-.260**	-.234**	-.198**	-.105	-.157**	-.189**	-.166**	-.234**	-.278**	.480**	.614**	.507**	.627**	-	
불안 3	-.310**	-.211**	-.210**	-.162**	-.213**	-.273**	-.230**	-.261**	-.300**	.593**	.685**	.709**	.683**	.744**	-
M	14.36	14.65	17.55	11.23	11.92	12.63	12.82	12.91	13.13	4.24	4.65	3.51	4.10	3.17	3.20
SD	3.02	2.68	2.92	2.37	2.49	2.46	2.31	2.04	1.96	1.98	2.40	2.01	2.05	1.80	1.75
왜도	-0.32	-0.14	0.03	-0.05	-0.28	-0.71	-0.79	-0.86	-0.92	0.63	0.64	1.31	0.82	1.65	1.43
첨도	-0.04	0.13	-0.02	-0.10	-0.20	0.44	0.78	1.37	1.42	-0.49	-0.71	0.84	-0.14	2.03	1.14

주. * $p < .05$. ** $p < .0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p	RMSEA(신뢰구간 95%)	CFI	SRMR
측정모형(부애착)	198.049	48	.000	.095(.082-.109)	.939	.0603
측정모형(모애착)	172.191	48	.000	.087(.073-.101)	.948	.0512

와Bentler(1999), 홍세희(2000)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CFI, RMSEA, SRMR을 확인하였고 모든 연구모형에서 모형 적합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합도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애착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beta = -0.423, p < .001$)과 모애착($\beta = -0.261, p < .001$)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학교적응과 모애착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 = 0.131, p < .05$)가 모두 통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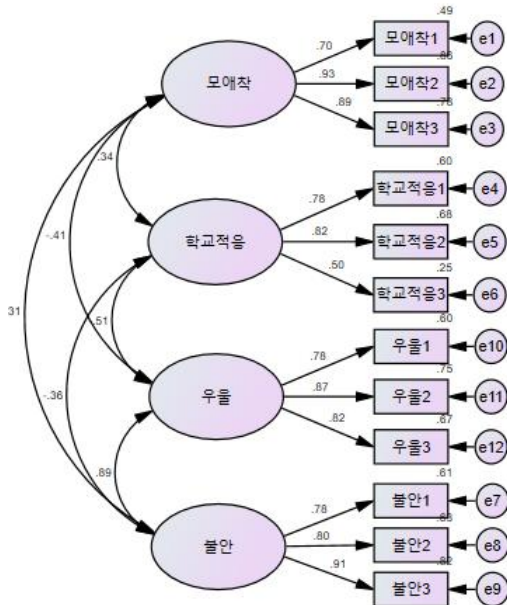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모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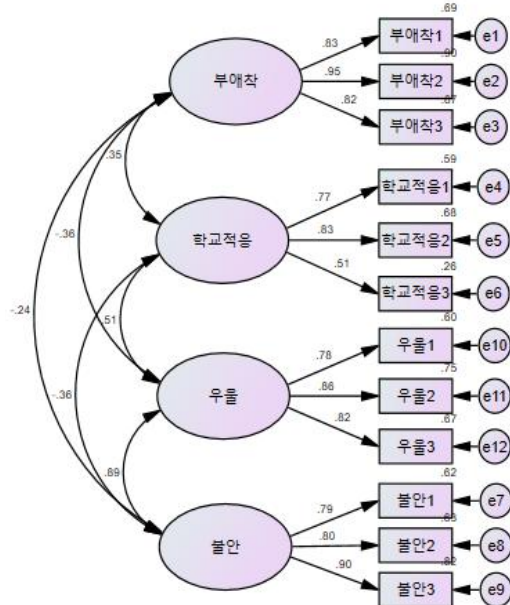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부애착)

표 3.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χ^2	df	p	RMSEA (신뢰구간 95%)	CFI	SRMR
연구모형(조절:모애착, 종속:우울)	101.213	33	.000	.078(.061-.095)	.955	.0576
연구모형(조절:모애착, 종속:불안)	68.287	33	.000	.056(.037-.075)	.976	.0521
연구모형(조절:부애착, 종속:우울)	138.726	33	.000	.097(.080-.114)	.934	.0748
연구모형(조절:부애착, 종속:불안)	106.01	33	.000	.080(.063-.098)	.953	.0678

표 4. 모애착의 조절효과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β	S.E.	t
학교적응 → 우울	-.423(-0.451)***	0.082	-5.488
모애착 → 우울	-.261(-0.234)***	0.053	-4.423
학교적응X모애착 → 우울	.131(0.057)*	0.027	2.125
학교적응 → 불안	-.271(-0.283)***	0.073	-3.866
모애착 → 불안	-.215(-0.192)***	0.055	-3.524
학교적응X모애착 → 불안	.164(0.07)*	0.028	2.5

주. * $p < .05$, *** $p < .001$

유의하였고, 학교적응($\beta=-0.271, p<.001$)과 모 애착($\beta=-0.215, p<.001$)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학교적응과 모애착의 상호작용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0.164, p<.05$) 또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애착이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유사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사 조절효과란 조절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Sharma, 2003). 자세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부애착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학교적응($\beta=-0.459, p<.001$)과 부애착($\beta=-0.175, p<.01$)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학교적응과 부애착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 0.17, p<.01$)가 모두

표 5. 부애착의 조절효과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β (I)	S.E.	t
학교적응 → 우울	-.459(-0.479)***	0.083	-5.777
부애착 → 우울	-.175(-0.135)**	0.045	-2.999
학교적응X부애착 → 우울	.17(0.06)**	0.022	2.769
학교적응 → 불안	-.319(-0.33)***	0.076	-4.362
부애착 → 불안	-.103(-0.079)	0.047	-1.699
학교적응X부애착 → 불안	.178(0.063)**	0.023	2.744

주.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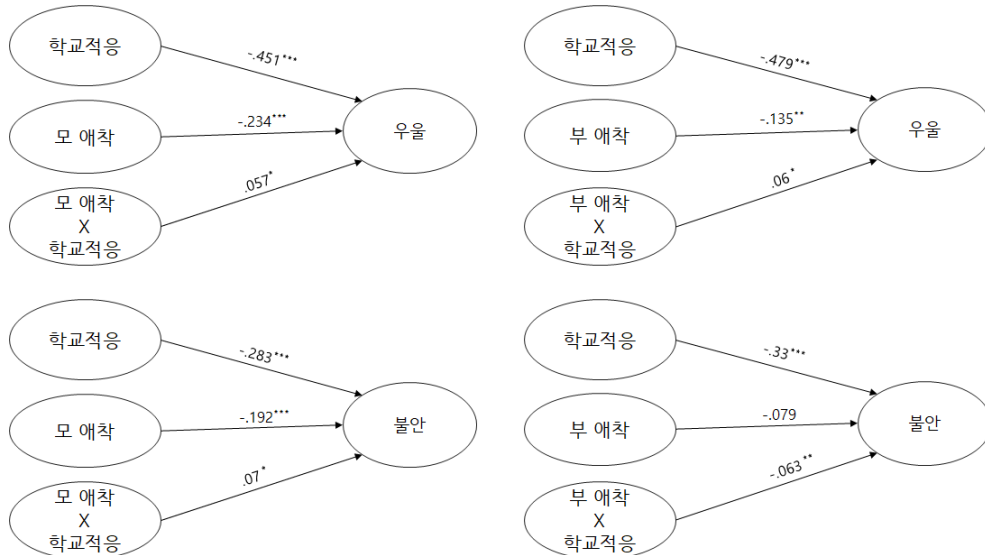


그림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학교적응($\beta = -0.319, p < .001$)과 학교적응과 부애착의 상호작용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 = 0.178,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애착($\beta = -0.103, p > .05$)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부애착이 학교적응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유사 조절효과를 보이지만, 불안과의 관계에서는 순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수 조절효과는 조절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하는 효과만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Sharma, 2003). 자세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5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 증상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애착과 모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 부애착, 모애착, 우울, 불안 증상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학교적응과 부애착, 모애착과의 관계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학교적응 정도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정도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으로,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은 학생은 부모, 모두와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불안의 관계 역시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울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역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적응, 부애착, 모애착과 우울, 불안의 관계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교적응, 부애착, 모애착과 우울, 불안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적응의 수준이 낮은 학생, 부모와 모에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우울, 불안과 관련된 심리적 고통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이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학교생활적응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증명한 선행연구(임혜림 등, 2014),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겪을수록 우울이 증가함을 보고한 연구(김정화, 조춘범, 2017; 송아랑, 신효정, 2015),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불안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이경은, 1998; 조윤숙, 이경님, 2010; Crystal et al, 1994; Sideridis, 2005)들의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부애착, 모애착과 우울, 불안이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는 부모애착과 우울증상의 부적 상관관계를 밝힌 Li, Delvecchio, Lis, Nie과 Di(2015)의 연구 및 부애착과 모애착이 불안과 부적 상관임을 보인 연구(한승희, 김은하, 2015), 불안정하게 형성된 애착이 불안,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와 정적인 상관관계임을 밝힌 연구(신문혜, 이지연, 2015)들과도 일관적이다.

둘째,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모애착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학교적응과 우울, 학교적응과 불안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예측변인의 주효과와 조절변인의 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애착이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유사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모애착은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 간

에 조절변인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학교적응과 무관한 우울,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우울, 불안의 감소에 있어 모애착은 환경적 자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애착이 청소년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DiFilippo & Overholser 2000; Liu 2008; Margolese et al, 2005)하고 마찬가지로 모애착이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함(Liu, 2008; Viana, & Rabian, 2008)을 밝힌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모애착이 학교적응과 상호작용하여 고등학생의 우울, 불안을 감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결과를 더욱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학교적응과 우울의 관계에서 예측변인의 주효과와 조절변인의 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애착은 학교적응과 우울의 관계에서 유사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교적응과 불안의 관계에서는 예측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애착이 학교적응과 불안의 관계에서 순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울의 경우, 모애착과 마찬가지로 부애착이 학교적응과 고등학생 자녀의 우울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반면 불안의 경우에는, 부애착은 학교적응과 불안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높여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부애착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불안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애착의 경우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선행연구(DiFilippo & Overholser 2000; Liu 2008; Margolese et al, 2005) 결과와는 상반된다. 마찬가지로, 부애착의 경우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밝힌 선행연구(Van Eijck et al, 2012)와도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부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불안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Breinholst et al, 2015)와 달리 직접적인 유의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학교적응과 불안사이에서 조절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애착은 학교적응과 상호작용하여 고등학생 자녀의 우울 및 불안 모두의 부정적 영향을 모두 감소시키는 데 조절변인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학교적응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애착이 유사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보아 부애착은 고등학생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환경적 자원으로서, 독립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모두 종합하여 논의하면, 부애착, 모애착의 조절효과를 각각 확인한 결과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부애착과 모애착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더 상승시키는 형태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적응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아지는 관계를 보이는데 부애착과 모애착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 불안 등 심리건강에 부모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Armsden, & Greenberg(1987)의 연구결과를 학교적응의 변인과 관련지어 검증한 것이며,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인 우울과 불안의 부, 모애착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애착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모애착에 치우치거나 부모애착을 구분 없이 다루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모애착은 물론 부애착의 조절효과를 각각 입증하여 제시하였다. 반면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 사이에서 우울과 관련한 부애착, 모애착의 양상은 동일하지만, 불안과 관련하여 모애착과는 달리 부애착은 순수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부, 모애착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 등에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결과(한승희, 김은하, 2015; Liu,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이는 추후 연구에서 부애착과 모애착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실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 부애착, 모애착, 우울, 불안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애착과 모애착이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우울 및 불안을 낮추는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학교 적응의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부·모애착은 모두 자녀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부·모애착관계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적 접근과 부모교육 자료가 적절히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한 부모교육과 상담적 접근으로는 가족놀이를 활용한 정서중심상담(조춘화, 2017), 집단상담(서은주, 이현림, 2008) 등이 부모-자녀간 애착증진을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유아의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기를 지나 사춘기를 겪는 과정 및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부모

들에게 이와 같은 접근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학교적응의 수준이 낮고 우울, 불안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위한 상담적 개입에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의 경험을 다루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혼의 증가로 그동안 정상적인 형태의 가정으로 인식 하였던 양친가정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혼과 더불어 맞벌이부부, 주말부부, 재혼 등이 증가함으로써 전통적인 양친부모에 의한 가정과는 다른 한부모 가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기광도, 2009)에서는 부, 모애착의 결핍과 같은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이 이러한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일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상담자와 함께 교정적 정서체험의 경험(김진숙, 2001; 이순태, 김명식, 2017)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험은 불안정한 애착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다. 더욱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애착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제한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애착을 동시에 살펴본 기존 연구결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와 같이 부애착과 모애착을 각각 나누어 살펴본 결과가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학교적응문제와 관련되어 우울, 불안의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교사들의 경우 먼저 학생들의 학교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학교적응 수

준이 낮을 경우 부, 모애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상담 주관을 비롯한 학부모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기회를 마련하고 자녀(학생)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활용,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학생의 우울, 불안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또는 과제들을 계획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개방의 날 행사, 아버지의 날, 우리집 역사 가게도 만들기 등은 학부모와 자녀간의 상호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부모로부터의 지지와 안정 애착을 인식하고 또한 부모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는 학생의 심리적 건강문제에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을 연관시켜 학생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부장적인 유교사회 및 가장으로서 아버지들의 바쁜 경제활동으로 인해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와의 상호작용 및 긍정적 애착 관계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에서 본 연구는 부애착 역시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과 정신건강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간의 친밀도 역시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잘 나누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결과(Alam, Barrera, D'Agostino, Nicholas, & Schneiderman, 2012; Barrera,

D'Agostino, Schneiderman, Tallett, Spencer, & Jovcevska, 2007; Hopmeyer & Werk, 1994)에 주목한다면, 아버지-자녀간의 안정적 애착형성을 위한 아버지 교육의 프로그램과 내용 구성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드러내고 표현하는 연습과 훈련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아버지와 자녀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에 소재한 5곳의 고등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연구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포함한 표본의 선정을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학교적응, 부애착, 모애착, 우울, 불안의 측정과정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소위 학교현장에서 바른 생활 학생 즉,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학생에 대한 선호가 반영되었거나 또는 부모애착과 관련하여 가정생활과 관련된 개인적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부담을 느낌으로서 학생의 일상생활과는 반대되는 측면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지니는 제약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바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학생 자신의 인식 그대로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흥미, 학업성취를 하위요인으로 한 독립변인으로서 학교적응을 살펴보았는데, 이외에

도 학교적응의 하위 유형으로서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적응 등 학교적응의 하위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자아탄력성과 같이 학교적응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자원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모애착과 부애착은 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 성별의 차를 살펴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 부, 모애착만을 선택하여 조절효과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측면의 조절요인들에 대한 탐색과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데 있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적응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부애착, 모애착 각각을 조절효과로 알아보는 본 연구의 모형대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유선 (2013).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공감과 정서표현성의 영향에 대한 고찰.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3(1), 153-176.
- 강유임, 김병석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애착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정적 대처기제의 중재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1), 19-42.
- 고수현, 강석기 (2014). 고등학생의 우울과 불안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 149-172.
- 권오숙, 문성호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31-46.
- 권애리 (2017).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육아하는 아빠를 위한 대디 컬렉션 인기.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6955&plink=ORI&cooper=NAVER
- 기광도 (2009). 결혼가정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분석. *형사정책연구*, 20(1), 41-70.
-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청소년의 부모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17, 209-224.
- 김누리, 신나나 (2017).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2), 19-42.
- 김미정, 강인설 (2008). 애착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95년~2007년. *아동학회지*, 29(5), 165-180.
- 김문주, 이해성 (199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 32-45.
- 김사라형선 (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3(3), 119-130.
- 김 산, 하은혜 (2011). 청소년의 특성불안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놀이치료연구)*, 14(2), 57-71.
- 김소린, 이은정, 조수현, 이성찬, 이상민 (2014). 심리적 요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자존감, 우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

- 구, 15(3), 1049-1065.
- 김소연, 이영식, 한덕현, 남규탁, 고복자 (2006). 기질 및 애착유형이 청소년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45(3), 222-229.
- 김수연 (2016).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과의 관계에서 사상체질에 의해 조절된 신체적 불안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 1215-1235.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수희 (2009).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허영란 (2000). 중, 고등학생의 물질남용 경험과 불안,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9(4), 631-649.
- 김원경 (2014). 한국 초, 중,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25(3), 199-231.
- 김정민, 유안진 (2005).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 159-176.
- 김정화, 조춘범 (2017).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6, 381-403.
- 김진숙 (2001). 대상관계이론의 상담적 적용에 대한 고찰. *상담학연구*, 2(2), 327-343.
- 남윤주, 이 숙 (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357-367.
- 문승태, 김희수 (2009).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불안, 심리적 안녕감이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1), 67-85.
- 민하영 (2012).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과 우울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915-927.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 (BSI-18)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507-521.
-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81-114.
- 박정녀, 최해림 (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 박현선 (1999).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 105-129.
- 배미예, 이은희 (2009).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및 우울/불안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 85-112.
- 서은주, 이현림 (2008). 집단상담: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9(3), 1117-1135.
- 선영운 (2016). 아동의 모애착, 또래관계기술,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3), 49-80.
-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 송아랑, 신효정 (2015). 학교적응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또래갈등해결전략의 조절효과.

- 발달지원연구, 4, 21-38.
- 신문혜, 이지연 (2015). 애착이 자기대상욕구를 매개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학회*, 22(1), 125-142.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안혜원, 이재연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0(1), 77-88.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유 정, 김봄메, 신형섭, 정주영, 최남희 (201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심리적 충격, 우울, 불안)와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한국위기관리논집*, 6(3), 223-241.
- 유현애, 홍혜영 (2013). 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불안에 미치는 심리극 효과. *청소년학연구*, 20(4), 97-124.
- 윤명숙, 이재경 (2010).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26(2), 69-92.
- 이경남 (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1-13.
- 이경은 (1998). 학교생활부적응 유형과 요인에 따른 학교사회사업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4(3), 276-305.
- 이상준, 안수영 (2011).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중도지체장애인의 장애 수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1(3), 239-266.
- 이순묵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순태, 김명식 (2017). 알렉산더의 “교정적 정서경험” 개념과 그 심리학적 함의. *인간연구*, (33), 247-279.
- 이미현 (2014). 청소년의 성에 따른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4), 87-112.
- 이지민 (2007). 아동, 청소년상담: 자아정체감과 학교 적응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4), 1593-1603.
- 이지연, 백정빈 (2009).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논단*, 8(1), 57-78.
- 이지은 (2017). 男 육아휴직 늘면서 女 육아휴직자 지난해 첫 감소. *아시아경제*, 2017.12.15. 12:00 최종수정, 2017.01.04. 인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2017121415155251763>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 1-27.
- 장애경, 이지연 (2010). 청소년의 모애착과 우울, 불안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8(4), 21-30.
- 장진이, 박노은, 이지연 (2016). 청소년의 우울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 거부민감성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8(1), 285-304.
- 조미정, 김민주 (2014). 청소년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성별차이 분석. *비판사회정책*, (45), 267-303.
- 조민자 (2013). 우울, 불안 및 부모의 방임적

-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인식 명확성과의 관계. *통합치료연구*, 5, 5-30.
- 조수민, 김정화, 노충래 (2015). 가정외보호아동의 친부모애착이 우울, 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Ping의 2단계 접근방식을 적용한 긍정적 대리양육자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1(단일호), 189-217.
- 조수철, 정 영, 홍강의, 신민섭, 성영훈 (2001). 시험불안과 우울,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225-236.
- 조춘화 (2017). 가족놀이를 활용한 정서중심상담이 청소년 자녀-부모 간 애착증진에 미치는 효과. *동서정신과학*, 20(1), 1-32.
- 주석진 (201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지역적 특성 비교: 서울특별시 가구별 월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 121-147.
- 조윤숙, 이경님 (2010).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8), 27-37.
- 최인숙 (2012). 성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135-160.
- 최준섭, 이동훈 (2017). 초등학교 남자교사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학연구*, 55(4), 36-70.
- 하민정 (2015).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29-60.
-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방식 및 문제 행동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1(3), 385-402.
- 한승희, 김은하 (2015). 고등학생의 부, 모, 애착과 대인불안간의 관계-사회적지지와 자기격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사와 교육 (구 교육논집)*, 34(단일호), 47-62.
- 한지영, 김정민 (2016). 여자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과 우울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질량지수 (BMI) 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6(4), 469-488.
- 한창환 (2001).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 품행장애성향 및 반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성격, 자아상 및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lam, R., Barrera, M., D'Agostino, N., Nicholas, D. B., & Schneiderman, G. (2012). Bereavement experiences of mothers and fathers over time after the death of a child due to cancer. *Death Studies*, 36(1), 1-22.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R.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6), 683-697.
- Barrera, M., D'Agostino, N. M., Schneiderman, G., Tallett, S., Spencer, L., & Jovcevska, V. (2007). Patterns of parental bereavement following the loss of a child and related factor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55(2), 145-167.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osquet, M., & Egeland, B. (2006).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anxiety symptom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a longitudinal samp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2), 517-55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vol. 1)*. New York: Basic Books
- Breinholst, S., Esbjørn, B. H., & Reinholdt-Dunne, M. L. (2015). Effects of attachment and rearing behavior on anxiety in normal developing youth: A mediational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1, 155-161.
- Bridges, L. J., Connell, J. P., & Belsky, J. (198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inter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92.
- Constantine, M. G. (2006). Perceived family conflict, parental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African American female adolesc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2(4), 697.
- Crystal, D. S., Chen, C., Fuligni, A. J., Stevenson, H. W., Hsu, C. C., Ko, H. J., ... & Kimura, S. (1994).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 cross cultural study of Japanese, Chinese, and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65(3), 738-753.
- Cruz, C., Duarte, J., Nelas, P., Antunes, A., & Almeida, M. (2014). Anxie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with hostile behaviour. *Atencion Primaria*, 46, 107-111.
- Derogatis, L. R. (1993). *Brief Symptom Inventory (BSI):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3rd ed.).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s.
- Derogatis, L. R. (2001). *Brief Symptom Inventory-18 (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NCS Pearson.
- DiFilippo, J. M., & Overholser, J. C. (2000).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attachment relationship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2), 155-166.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 Bombik, E., Kindler, H., & Scheuerer Englisch, H.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 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1-337.

- Hankin, B. L. (2006). Adolescent depression: description, causes, and interventions. *Epilepsy & Behavior*, 8(1), 102-114.
- Hamdan-Mansour, A. M., Hamaideh, S. H., Azzeghaiby, S. N., Hanouneh, S. I., & Aboshaiqah, A. E. (2015). Psychosocial correlates of motivation for academic accomplish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Open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4(01), 1.
- Harold, G. T., Shelton, K. H., Goeke Morey, M. C., & Cummings, E. M. (2004). Marital conflict, child emotional security about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3(3), 350-376.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erres, J. (2015). Adolescent coping profiles differentiate repor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86, 312-319.
- Hopmeyer, E., & Werk, A. (1994).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bereavement groups. *Death Studies*, 18(3), 243-256.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ughes, C., Herron, S., & Younge, J. (2014).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for Mild to Moderate Depression and Anxiety*. Maidenhead: McGraw-Hill Education.
- Irons, C., & Gilbert, P. (2005). Evolved mechanisms in adolescent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The role of the attachment and social rank systems. *Journal of Adolescence*, 28(3), 325-341.
-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79.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ition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 Li, J. B., Delvecchio, E., Lis, A., Nie, Y. G., & Di Riso, D. (2015). Parental attachment, self-control,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nese and Italian adolescents: Test of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43, 159-170.
- Liu, Y. L. (2008). An examination of three model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ttachments and adolescents' social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41-952.
- Margolese, S. K., Markiewicz, D., & Doyle, A. B. (2005). Attachment to parents, best friend, and romantic partner: Predicting different pathways to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637.
- Oldfield, J., Humphrey, N., & Hebron, J. (2016).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 relationships and school connectedness in predicting adolescent mental health outcome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21(1), 21-29.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4), 420-440.
- Ping Jr, R. A. (1996).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166.
- Prakash, K., & Coplan, R. J. (2007). Socio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school adjustment of socially withdrawn children in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2), 123-132.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
- Scott, L. N., Whalen, D. J., Zalewski, M., Beeney, J. E., Pilkonis, P. A., Hipwell, A. E., & Stepp, S. D. (2013).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developmental changes in adolescent girls' self-reported quality of attachment to their primary caregiver. *Journal of Adolescence*, 36(5), 797-806.
- Sharma, N. (2003). The role of pure and quasi-moderators in servic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ongoing customer-service-provider relationships.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10(4), 253-262.
- Sideridis, G. D. (2005). Goal Orien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Depression: Evidence in Favor of a Revised Goal Theory Framework.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3), 366.
- Sroufe, L. A., Egeland, B., Carlson, E. A., & Collins, W. A. (2005).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 The Minnesota Study of Risk and Adaptation from Birth to Adulthood*. Guilford Press.
- Thompson, R. A. (1987). Creating instructional and counseling partnerships to improve the academic performance of underachievers. *The School Counselor*, 34(4), 289-296.
- Van Eijck, F. E., Branje, S. J., Hale, W. W., & Meeus, W. H. (2012).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adolescent attachment relationship quality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6), 871-883.
- Verner-Filion, J., & Vallerand, R. J. (2016). On the differential relationships involving perfectionism and academic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assion and affect.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103-113.
- Viana, A. G., & Rabian, B. (2008). Perceived attachment: Relations to anxiety sensitivity, worry, and GAD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6), 737-747.

- Warren, S. L., Huston, L., Egeland, B., & Sroufe, L. A. (1997). Child and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and early attach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5), 637-644.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93.
- Woolley, M. E., & Grogan Kaylor, A. (2006). Prot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55(1), 93-104.
- Yap, M. B., Pilkington, P. D., Ryan, S. M., Kelly, C. M., & Jorm, A. F. (2014). Parenting strategies for reducing the risk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a Delphi consensus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6, 67-75.
- 원 고 접 수 일 : 2017. 11. 06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3. 05
게 재 결 정 일 : 2018. 07. 16

Moderating Effects of Mother Attachment and Father Attachment on the Relation between School Adjustment, Depression, and Anxiety in Adolescents

SiHyeong Kim

DongHun Lee

JoonSup Choi

DoYou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 and fath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s among school adjustment, anxie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A total of 334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Ping's two-step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showed that school adjus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mother attachment and father attachment, while school adjust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th depression and anxiety. Further, mother attachmen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depression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anxiety, while father attachment showed a moderating effect sole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anxiety. There was a main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such that students who had higher attachment to both mother and father showed lower depression and anxiety scores.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s, depression, anxiety, school adjustment, mother attachment, father attachment